

 문화체육관광부		<h1>보도자료</h1>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	
배포일시 2017. 10. 30(월)	담당부서 주독일한국문화원 문화사업1팀				
담당자 토비아스 리퍼르트(+49-30-26952-124)	보도자료 담당	이동준(+49-30-26952-145)			

“재즈코리아 페스티벌 2017” 유럽순회공연

유럽지역 재외 한국문화원이 공동 개최하는

한국 재즈 뮤지션들의 유럽 순회공연 - <재즈코리아 페스티벌 2017>

주독한국문화원(원장 권세훈)이 유럽지역 5개 문화원과 공동으로 <재즈코리아 페스티벌>(이하 재즈코리아)을 개최한다. 2013년 제 1회 행사를 시작으로 어느덧 5주년을 맞는 재즈코리아는 명실 공히 한국 재즈 뮤지션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올해에도 역시 한국의 재즈 뮤지션 70여 밴드가 응모하는 등 모집 단계부터 큰 관심을 불러 모은 재즈코리아는 참가팀 모두가 한 무대에 서는 11월 9일 베를린 <케셀하우스>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1월 17일까지 총 9일간 4개 밴드가 독일 3개 도시와 유럽 5개국을 순회하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프리재즈에서 판소리까지, 장르를 아우르는 한국 재즈의 축제

금년도 재즈코리아에 참가하는 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백년 가까운 한국 재즈의 발전사를 집약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리형식에 기반한 사운드를 표방하는 <Trio GO>는 즉흥연주를 구사하며 정통재즈의 정수를 선보이는가 하면, <SB 라이트윙>은 재즈에 국악을 접목한 크로스오버 음악을 연주하는 팀이다. 박지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피리, 생황, 양금 등 한국 전통 악기를 바

탕으로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재즈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반면에 김홍기의 <HG FunkTronic>은 팝과 재즈를 넘나들며 장르의 벽을 허무는 음악을 추구한다. 한국 재즈의 역사를 망라한 흥미로운 라인업이다.

행사 5주년 기념, 독일 3개 도시와 유럽 5개국을 순회하는 재즈코리아 대장정

개막식 공연에 이어 4개 팀은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로이트링겐 등에서 12일까지 공연을 마친 뒤, 각 팀별로 일정에 따라 이탈리아 로마와 포지아, 스페인 마드리드, 벨기에 브뤼셀, 헝가리 부다페스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순회공연을 펼치게 된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유럽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더 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 4년간 재즈코리아를 통해 유럽을 찾은 한국의 재즈 밴드는 모두 22개 팀에 달한다. 한국의 재즈 뮤지션과 유럽의 인연이 재즈코리아를 통해 계속 이어지면서 점차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의 재즈 뮤지션들이 유럽 현지의 레이블에서 앨범을 발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즈코리아 참가 밴드, 유럽 음반기획사에서 음반 발매

지난 4년 간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한 재즈 레이블 ‘나겔-하이어 레코드’에서는 김지석 밴드의 앨범 “Treasure Live at Walchy’s”, 그리고 트리오 클로저, 조영덕 트리오, 남경윤 트리오와 톤 티스, 한승석&정재일, 혜진 콰르텟 등의 곡이 수록된 샘플러 앨범 “Just Jazz, Jazz Korea”이 발매됐다. 이들은 모두 재즈코리아를 통해 유럽 무대를 찾았던 팀들이다. 그런가 하면 2014년 행사에 참가했던 ‘블랙 스트링’은 2016년 ‘ACT-Label’에서 음반을 발매했다. ‘ACT-Label’은 프랑스 최고의 재즈뮤지션으로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재즈보컬 나윤선의 앨범을 발매한 독일의 저명한 음반 레이블이다. K-Pop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공연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재즈 뮤지션들에게 재즈코리아가 유럽무대에 우리의 재즈를 소개하고 유럽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행사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한 결과다.

어느새 5주년을 맞은 <재즈코리아 페스티벌>이 이렇듯 다양한 한국의 재즈음악을 유럽에 널리 소개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계속 그 전통을 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붙임 1. 참가팀 소개

<HG FunkTronic>

- 김홍기(드럼), 안병철(베이스), 신영하(트럼펫), 김하양(키보드), 김형호(DJ)

팝과 재즈를 넘나들며 장르의 벽을 허무는 멀티 플레이어 김홍기를 주축으로 결성된 팀이다. 김홍기는 암스테르담 콘서바토orium과 아르테즈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뉴욕주립대(SUNY Purchase)에서 전액장학금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실력을 쌓은 드러머.

HG 핑크트로닉은 드럼의 김홍기와 신영하(트럼펫과 사운드 이펙트), 김하양(건반), 안병철(베이스), 김형호(사운드 디자인과 디제잉)로 구성되어있다.

‘이전의 모습을 날려버릴 파격적인 시도’(MM JAZZ), ‘한국 재즈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프로젝트’(JAZZ PEOPLE) 등 재즈 전문 잡지의 극찬을 받고 있는 팀이기도 하다. 2016년 대한민국 밴드로는 유일하게 <홍콩 국제 재즈 페스티벌>, <베이산 재즈 페스티벌>과 <제1회 바오딩 재즈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됐다.

<SB 라이트윙>

- 박수빈(보컬), 김하람(장구, 팽과리, 북, 징, 핸드팬), 신명욱(대금, 소금, 태평소, 파이프, 리코더), 프랭크 발렌트(퍼커션), 기욤 올티(색소폰)

보컬 박수빈이 주축이 된 밴드로 재즈에 대중음악과 전통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목하여 국내뿐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등 다양한 나라에 공연을 다니며 현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음악은 주술적 특색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만물의 소생, 인간과 생명체의 삶의 희노애락을 담은 내용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쉽고 신비롭게 표현한다.

보컬은 한국 전통 판소리 창법부터 가요, 랩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고 타악기도 연주한다. 퍼커션은 장구와 북은 물론 쟜메, 드럼, 탱트럼, 따블라를 연주하며 노래한다. 관악기 연주자는 대금, 태평소, 피리, 소금 등의 한국 전통 악기는 물론 파이프에 즉흥으로 구멍을 뚫어 연주하기도 하며 다양한 서양 관악기를 두루 연주

한다.

<Trio GO>

- 오진원(기타), 이선재(색소폰), 송준영(드럼)

2016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서 대상과 Best Creativity 상을 수여한 색소포니스트 이선재를 중심으로 기타 오진원, 드럼 송준영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트리오. 베이스가 없는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한 리듬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폭넓은 프리형식에 기반한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재즈 언어 위에 사이키델릭, 록, 에스닉적 요소들이 녹아들어 있는 임프로비제이션을 구사하는 팀이다.

2015 년 겨울에 데뷔앨범 <Sounds much better>를 녹음하고 서울 곳곳의 재즈 클럽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팀의 라이브 퍼포먼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양화가로도 활동하는 리더 이선재의 동양화 페인팅이 즉석에서 어우러진다는 것이다. 임프로비제이션을 ‘현 상황에 대한 감정에 충실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그의 라이브 페인팅 또한 재즈의 핵심인 임프로비제이션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동양화의 핵심인 “선”과 “여백”은 이들의 음악에서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박지하>

피리, 생황, 양금 등 한국 전통 악기를 바탕으로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연주자이자 작곡자. 음악 그룹 숨[su:m]을 창단하며 공식적인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전통 악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소리들과 비정형화된 음악 형식들로 새롭게 만든 숨[su:m]의 음악은 한국 음악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2010년 1집 《공간에서 숨 쉬다》, 2014년 2집 《숨[su:m] 2nd》을 발표했다. 숨[su:m]은 2013년 세계적인 음악 마켓인 워멕스(WOMEX) 공식 쇼케이스에 선정되면서 국내 활동뿐 아니라 본격적인 해외 활동을 하게 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WOMAD, SXSW를 비롯한 다수의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2016년 11월 숨[su:m] 활동을 접어 두고 박지하의 이름으로 정규 1집 음반 《커뮤

니언(Communion)》을 발표했다. 존 벨(비브라폰), 김오키(베이스클라리넷, 색소폰) 등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과 협업하여 박지하가 연주하는 피리, 생황, 양금 등의 전통 악기를 기반으로 미니멀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사운드의 음악을 만들었다.

2017년 레드볼 뮤직 아카데미 서울(RBMA Seoul) 펠로우로 선정되었으며, 클래식 넥스트(Classical: NEXT)와 위멕스(WOMEX) 공식 쇼케이스에 동시에 선정되면서 다시 한 번 국내뿐 아니라 세계 음악 무대에서도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신의 음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붙임. 2. 공연 일정

<HG FunkTronic>

- 2017.11.09.(목), 19:00 독일 베를린, 케셀하우스 (Kesselhaus, Kulturbrauerei)
- 2017.11.11.(토), 20:30 독일 베를린, 주독일 한국문화원 공연장 <스페이스 고도>
- 2017.11.13.(월), 19:00 이탈리아 로마,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다목적홀
- 2017.11.15.(수), 21:00 이탈리아 포자, Giordano 극장
- 2017.11.17.(금), 19:00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예술대학교 샤푸홀 (shabat hall of kazakh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SB 라이트윙>

- 2017.11.09.(목) 19:00 독일 베를린, 케셀하우스 (Kesselhaus, Kulturbrauerei)
- 2017.11.10.(금) 19:00 독일 베를린, 주독일 한국문화원 공연장 <스페이스 고도>

<Trio Go>

- 2017.11.09.(목) 19:00 독일 베를린, 케셀하우스 (Kesselhaus, Kulturbrauerei)
- 2017.11.10.(금) 20:00 독일 함부르크, 할레424 (Halle 424)
- 2017.11.11.(토) 19:00 독일 베를린, 주독일 한국문화원 공연장 <스페이스 고도>

<박지하>

- 2017.11.09.(목) 19:00 독일 베를린, 케셀하우스 (Kesselhaus, Kulturbrauerei)
- 2017.11.10.(금) 20:30 독일 로이틀링엔, 파펠가르텐 (Pappelgarten)
- 2017.11.12.(일) 21:00 독일 베를린, 비플랫 (b-flat, Jazzclub)

- 2017.11.14.(화) 19:30 헝가리 부다페스트, 에이38 쉽 - 아트갤러리
(A38 Ship - Art Gallery)
- 2017.11.16.(목) 19:30 스페인 마드리드,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 2017.11.17.(금) 20:00 벨기에 브뤼셀, 주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문화원 멀티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독일한국문화원 문화사업팀(☎ 49-30-26952-1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